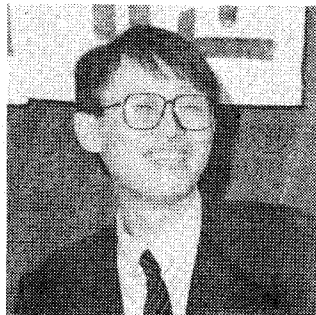


총선통한 대중투쟁 활성화

인터뷰

태재준 전대협 임시의장을 만나



투쟁의 분위기를 창출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현재는 현재 합당한 민중당은 2/3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 뜻에 의해 2/3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합당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풀이없이 정통성 시비가 일고 있다. 따라서, 민중당이

독자후보를 지원하면서도 전국연합이 정한 선거기준에 해당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전국연합의 총선방침에 동의하거나 공약화하는 후보나 민족운동세력에서 상징성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을 지지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최근 등록금투쟁과 총선투쟁이

다. 따라서, 전대협 차원의 통일적인 입장을 내오기도 힘들었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대협에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인 등록금과 선거를 각 대학 준비와 치지에 맞게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록금 투쟁의 내용이 교육재정 확보로 정립된다면 총선에서 이를 공약에 내걸고 교육재정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사립대학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약 70%의 학생들이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교육재정이 확충될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문제의 핵심인 교육재정의 문제가 정권과 연

나갈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느정도 준비되었는지.

-전대협에서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총선준비를 위해 실천방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표권할 단체로 귀향한다든지, 부재자투표를 꼭 한다든지 가정방문단을 조직하는 일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월 전대협차원에서 동시다발 총선준비를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대협의 앞으로의 통일투쟁 전개방향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합의서의 이행 촉구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대해 그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요.

두번째는 한반도내에서 통일로 가는 경로와 방식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면한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철폐, 통일인사 석방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전대협의 이후 일정은.

-이후 일정은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전대협 총회가 있고 5월달에 전대협 출범식은 가질 예정입니다.

(특집부)

선거 적극참여 통해 반민자당 운동 벌일터 등록금 투쟁·교육재정 확충 정당성 선전에 주력

선거를 통해 2/3의 의석을 얻음으로써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거나 내각제 개헌과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연합의 강화, 민주대연합의 구축 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후보전술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전국연합에서 제일먼저 연합공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래에서부터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상층부만 협상하면서 대중적인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수화경향도 있고요. 이 속에서 연합공천 노력이 실패로 끝났고, 민주당도 이미 후보를 선입해 온 상태여서 사실상 연합공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침이 전국연합의

맞물려 있습니다. 구체적 결합방도는.

-무엇보다 지역, 지구대협별로 실정이 달라 논의가 어려웠습니

관련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또한 지구대협 차원의 선전전 및 전대협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백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한주 메모

3월 1일 : 정신대참상 미(美) 보고서 첫공개, 버마전선 한국인 위안부 실태발표

-월남 전사자 총4만6천24명 국방부 첫 공식발표

-미, 아-태경제기구 추진 APEC확대개편 수출확대 전략인

3월 3일 : 국과수 민사소송문서 감정금지, 형사사건만 전담키로

-금품요구하는 유권자 강제처벌 방침

-대통령공약남발 중단촉구민주당, 안기부·대통령 고발문제 검토

-연세총추 발간중단, 현대기사 게재 마할

-박종근총추 위원장 민주당 전국 공천 거부

3월 4일 : 여·야 탈법사례 맞

일 : 경찰 여당 공천자 지원 문서 작성, 전복무서 민심동향-총선 대책들 담다

-여·야 유권자 냉담 대척고심, 바람들이보다 정책대결 추진

-해군유사 복직 결의 대회, 경희대 크라운

-이라크 군사재제 긴장조조 미·영·불 대량 살상무기 폐기거부

3월 5일 : -민자 전국구후보 54명 발표, 최각규부총리 탈락

-99대전 주·객관식 비율등 일시 요강 확정

-중동평화회의의 4차 쌍무협상 실패없이 폐막

-북한 2년내 핵무기체제완성, 올해 핵물질생산, 내년 장치개발, 94년 운반계획

-도시빈민 생존권쟁취 결의대회, 성공관대 금잔디 광장

3월 6일 : -전농 등 농민단체 민자추진운동 폐기로 논의

-미릴관행로 바이러스 날

-이문옥씨 광주시민후보로 동서구 무소속 출마, 시민 1천여명 '광주시민선언' 발표



현 장 취 재

"우리의 빼앗긴 생존권은 어디에..."

지난 2일 '전국도시빈민 협의회 건설발기인 대회 및 92도시빈민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가 노점상, 재개발지역 철거민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관대 금잔디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국 2백만호 주택건설과 함께 시작된 무제한 철거와 재개발의 정복속에 빈민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해 왔다"며 "이번 14대 총선에서 빈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자당을 낙선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의서를 발표했다.

이후 전국빈민연합 중앙위원인 소순관씨의 도봉구구 민중후보출마를 지지하였으며, 대학교까지 평화행진을 벌이려하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이영채 記者)

시 사 상 식

이슬람 원리주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주로 회교원리주의라고 불리고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슬람정통주의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 원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에서 이슬람이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슬람은 서구적 개념에 따른 협의의 종교적인 신앙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슬람은 종교이면서 국민생활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다. 즉, 사회질서이며, 인생철학이며, 경제원리인 동시에 통치방법인 것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정통주의)

이슬람은 초기부터 융성하게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서기 630년 메디나에서 막사로 성전(제사)한 이래 1세기내에 아랍인들의 정복은 서에서는 대서양에서 동으로는 무슬림 지배의 중국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지역을 정복하였다. 중세기에 와서는 유럽, 북아프리카와 인도등을 포함한 방

로 타락하는 것을 막고 이슬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슬람의 복고적 부흥운동이 일어났게 되었다. 초기에 원리주의 운동의 대표적 인 예는 18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 발달한 와하비운동과 리비아에서 발달한 사누시운동이다. 와하비교리는 엄격한 중법주의가

엄격한 중법주의의 복고적 부흥운동

대한 지역을 정복하였으며 이러한 무슬림들의 군사적 종교적 확장은 17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기독교의 영향과 지배하에 무슬림국가들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되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문명이 아랍지역에 범람해옴에 따라 순수 정통이슬람교가 세속주의

특성으로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이 단지 규칙들을 만들어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슬람정신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일상생활 어디에서든지 이슬람을 적용시키려 했다. 세대로 원리주의자들은 무슬림의 결속과 비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원리주의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순수이슬람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과학기술문명을 수입해 이슬람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에 밀려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 원리주의 운동의 기점이 된것은 1979년 호메이니의 이란 회교혁명이다. 그 이후 원리주의 운동은 급속히 퍼져 현재의 대표적 세력은 이란의 호메이니 세력과 리비아의 가다피

세력, 그리고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세력은 오늘날 무슬림세계에서 현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 당시 후세인 이라크 대 통령의 미국과의 대결로 인해 범 아랍적으로 고양된 반미와 반서구화 물결이 비무슬림에 대해 철저히 적대시하고 있는 원리주의 운동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원리주의 운동은 부분적인 서구화를 지양하며 복고적인 이슬람화를 통해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아랍권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유재선
(한국외대 중동문제 연구소)

문화 격전장에서선 大學人



이 지 환
(본보 편집장)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대학의 문화'는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왜색문화가 활개치는 것을 보고 문화적 '망국론'을 얘기해왔다. 우리의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에 왜색문화의 침투로 인한 이 폐해가 결국 망국에 이른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지금 소위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인들은 그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치 않고 행동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80년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식문화가 커다란 위협을 받았다. 바로 패스트푸드라 불리는 서양식의 간단한 음식이 급속히 자리잡으면서 부터이다. 또한, NON-NO로 대표되는 일본식의 의복문화가 서서히 우리 의복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90년대가 도래하면서 이른바 조족지혈(鳥足之血)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으며 이제는 국민학생의 학용품중 상당부분이 외국 상표로 탈바꿈했다. 하더라도 조그만 종이컵에서 지우개, 연필, 자에이르기까지 외국 일용품이다.

사회의 왜색물결과 왜제품선호의 병은 치유될줄 몰랐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하반면에 왜색문화가 뿌리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왜색문화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모습들을 지적해야 할 대학인들은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채 왜색문화에 놀아나고 있다. 물론, 대학인들이 단순히 왜색문화를 그들의 전유물이 되려는 양여기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문제이다.

대학문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대한 책임도 동시에 느껴야한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학인이 우리

망각과 특권의식에 묻힌 우리의 모습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다. 대학인 전체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몇몇 이들은 한순간의 환상과 쾌락만을 좇는다. 서양식 문화에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촌스러운 사람'이라는 별호를 붙인다. 물론 외제 학용품과 조그만 거부감조차 이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그저 외제 상품과의 완벽 한 '일체'만이 그들 자신을 돋보이게하는 자연스런 방법이라 여긴다. 요즘들어 부쩍 눈에 띄게 많아진 라카페는 그들의 분위기에 맞는 이른바 신선한 노래와 삶의 장소 중 일부가 되어버렸다. '뉴키즈'열풍이 무색하리만치 많은 이들이 또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뉴키즈'공연장에 간 10대 극성 학생 팬들을 나무루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 또한 가라오케와 흡사한 노래방이 학교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학생의 음악시설로 만남의장소로 스트레스해소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 업주는 친절히 안내 팔트프와 무료표를 학교앞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 학교앞에는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을 내모스 터가 불는다. 지나가는 대학생의 시선을 모은다. 한마디씩 내뱉고가는 말이 요즘 '그 곳 물이 좋다는데'라는 것이다. 예뻐한 막걸리와 찬소주에 파전 한접시는 예뻐하고 일본식 술집인 로마바다라는 연일 만원이다. 대학의 술문화에 대한 논의도 이제 불필요할 때가 도래할지 모른다.

이정도 된다면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은 왜 색문화의 '선봉장'이라해도 어찌 할 말이 없다. 지금은 방황하는 대학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얼만큼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대로 나가면 21년대의 대학가 모습이 앞당겨질만하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대학문화의 조그만 한부분이 되는것조차 거부해온다. 방황하는 대학문화의 종착역이 보이지않고 흔들리다해도 대학인의 모습을 자각해야 한다.

외제 펜을 들고 외제 종이에 글을 쓰며 삼삼오스 흘러나오는 헤드폰을 귀에 끼고 아르몬도와 건포도를 먹는 우리의 모습이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의 자세와 의식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분명코 그 '선봉장'에는 대학인이 나서야한다. 그것이 우리의 참의무요 모든이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종착점'도 그곳에 있으리라.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페이지

20살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란제리 - 에띠앙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그래서 에띠앙은 빨강, 파랑

〈에띠앙 사랑이야기 10〉

하나, 좋아하는 마음이 아이스크림 같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은은한 향수같은거야
두울, 좋아하는 마음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같은거야, 사랑하는 마음은 밤새
쌓이는 하얀눈이야
세엡,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은 사랑을 선물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붉은장미 한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밤이야
네엡, 좋아하는 마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말도
못하는거야
다엡, 좋아하는 마음이 크림쉬인 커피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블랙커피야

여섯,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일곱, 좋아하는 것은 손수건 직시며
이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뒤돌아 눈물짓는거래
여덟, 좋아하는 사람 편지엔
사랑한다 말 뿐이고, 사랑하는
사람 편지엔 그저 한숨뿐이야
아홉, 좋아하는 마음은 관속에 누우면
끝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지옥까지도 끌고 가는거야
여열, 좋아하는 마음의 시작은 쿨로부터
시작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시작되는거야



20살 감각의 색다른 아름다움에의 초대,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스물, 스물하나. 이 시절 우리의 가슴은 하트가 된다.
술적하기에, 신선하기에 우리의 가슴은 하나가 된다"
여자나야 20살.
자기만의 맛을 강조하고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세대라 할 수 있겠지요. "속옷을 잘 입어야 진짜 멋쟁이"란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름답고 예쁜 나이 20살.
어떤 일에서건 열의를 아끼지 않으며, 독특한 개성을 내보이고자 마로 그 20살 여성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내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란제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부드러운과 심플(Simple)함을 테마로 하는 촉감의 변화를 시도한 에띠앙입니다. 레이스 사용을 자제하고 선(線)을 중시한 절제미(節制美)와 겉옷과 잘 어울리는 대담한 칼라의 선택,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고려해서 만든 신세대 감각의 란제리가 에띠앙이지요.
에띠앙 / 그래요, 그 예쁜 나이가 내자신일 수도 있다는 색다른
정성으로 예쁘고 편하게 만든 것이 에띠앙이예요. 좋아하는
마음 빨강과 사랑하는 마음 파랑이 어우러져 농도 짙은
패션 칼라에 잘 배색된 것이 에띠앙이랍니다.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잘 결들여진 20살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란제리 - 에띠앙.
그래서 에띠앙을 빨강, 파랑이라 부르는가 봅니다.



강수진 25세, 에띠앙 디자이너
90년 인하대학교 의류학과졸업